

## SPORTS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 ‘2025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무안군청 검도팀, 단체전 ‘정상’

무안군청 검도팀이 ‘2025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무안군청 검도팀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부 일반부 7인조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유하늘, 정경인, 김병훈, 박시원, 이후성, 송인준, 김한범으로 이뤄진 무안군청팀은 결승전에서 수원특례시청에 경기 초반 5명까지 4-1로 크게 앞선 뒤 최종 스코어 4-3으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특히 주장 유하늘은 뛰어난 경기력으로 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팀의 우승을 견인하는 등 주장다운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앞서 2025년 상반기 총 6개 대회에서 단체전 3회·개인전 1회 우승, 3위 2회 등의 견고한 성과를 올린 무안군청 검도팀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국 최고 실업팀임을 확고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대회에서 김한범은 5단부 개인전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한범은 이환희(용인시청)와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0-1로 석패, 준우승에 만족했다.

이해승 전남도검도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은 전남검도의 밝은 미래가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다가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상반기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무안군청 검도팀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스릉, 김민아 잡고 ‘화려한 부활’

### LPBA 두 대회 연속 우승 ‘쾌거’

‘캄보디아 특급’ 스릉 피아비(34·우리금융캐피탈)가 결승에서 김민아(NH농협카드)를 제압하고 통산 9번째로 여자프로당구 LPBA 우승을 차지했다.

스릉은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6시즌 3차 투어 ‘올바른 생활카드 NH농협카드 PBA-LPBA 체리티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민아를 세트스코어 4-1(11-3 2-11 11-5 11-1 11-6)로 꺾었다.

경기 시간은 79분으로, 이번 시즌 개막전인 우리금융캐피탈 챔피언십에서 김가영(하나카드)이 기록한 76분에 이은 역대 LPBA 결승전 최단 시간 2위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쳤던 스릉은 지난달 2차 투어(하나카드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 4000만원을 추가해 누적 상금은 3억6282만원이 됐다. 또한 대회 규정에 따라 우승자인 스릉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쌀이 기부된다. 한 경기 최고 애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웰컴투랭킹’ (상금 200만원)은 PQ(2차 예선) 라운드에서 김한길을 상대로 1.923을 찍은 이지은이 차지했다.

연합뉴스



## 가을야구도 ‘빨간불’…KIA, 원정서 반등할까



12~14일 대구 삼성전…15~17일 잠실 두산전

승률 0.500 리그 6위…투·타 고른 상승세 절실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원정 6연전에서 순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KIA는 지난주 주중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워닝시리즈를 기록한 뒤 주말 NCD아노스에 게 2패(1경기 우천취소)를 당했다. 그 결과 50승 4무 50패 승률 0.500으로 승패마진이 0이 됐다. 순위는 6위로 하락했다.

후반기 완전체 전력을 회복하며 반격에 나서는 듯했으나 중위권을 전전하는 모습이다.

선두권과는 이미 뒤집기 힘든 격차다. 리그 1위 LG트윈스와 11.5게임차, 2위 한화이글스와 9.5게임차다.

현실적으로 3위를 노리고 있던 KIA는 롯데자이언츠와도 5.0게임차로 멀어졌다.

4위 SSG랜더스와 5위 kt위즈는 각각 2.0게임차, 1.0게임차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7위 NC가 0.5게임차, 8위 삼성라이온즈가 2.0게임차로 턱밑까지 쫓아왔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40경기만을 남겨둔 현재,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우승은커녕 가을 야구조차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다.

덕이 KIA는 이번 주 주중 삼성, 주말 두산과의 경기 예정되었다. 이 기간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순위 분수령에 있는 현재 KIA 타선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지난주 경기에서 팀타율 8위(0.249)에 머물렀고, 실책도 6개로 두산(8개)과 키움(7개)에 이어 가장 많았다.

대형 약재도 생겼다. 슈퍼스타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아웃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지난 7월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5회말 상대 윤동희의 3루 땅볼 타구를 처리하다 햄스트링 통증을 느꼈다.

그는 해당 타구를 한 번에 잡지 못했고, 공을 다시 주우려다 불편함을 느낀 듯 절뚝했다. 이어 곧바로 박민과 교체됐다.

김도영은 8일 창원 소재 병원에서 MRI 검진을 받았고, 구단 지정병원에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왼쪽 햄스트링 근육 손상 소견을 받았다.

올 시즌 3번째 햄스트링 부상이다. KIA 관계자는 “현재 부종이 있어 2~3주 후 재검진을 통해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정규리그 40경기만을 남겨둔 KIA는 9월에 리그를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이 8월 말에 재검진을 받은 뒤 재활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복귀는 불가능하다.

결국 남은 주전 타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중심타선을 이끌고 있는 최형우, 나성범, 위즈덤 등이 제 몫 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즈덤의 후반기 상황은 좋지 않다. 16

경기에서 10안타 4홈런 7타점 20삼진 타율 0.167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장타는커녕 헛스윙만 늘어가고 있다.

올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형우도 후반기 16경기 18안타 3홈런 8타점 타율 0.269로 주춤하고 있다.

후반기에 돌아온 나성범은 16경기 52타수 15안타 1홈런 5타점 타율 0.288을 기록했다. 점점 페이스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이상의 활약이 필요하다.

김선빈 역시 15경기 50타수 13안타 2홈런 6타점 타율 0.260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김도영의 공백과 다른 타자들의 부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더욱 분발해줄 필요가 있다.

마운드 또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주 5경기에서 팀 평균자책점 9위(6.00)를 기록했다. 후반기 전제로 넓혀봐도 선발이 평균자책점 8위(5.08), 볼펜이 9위(6.00)로 부진하다.

외인 투수 올라는 지난 6일 부상 후 복귀전에서 2.2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다. 김도현도 8일 NC전에서 6이닝 5실점, 이외리 는 10일 NC전에서 1.1이닝 7실점으로 각각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네일과 양현종이 연일 호투를 펼치면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KIA는 이런 상황에서 주중 경기를 삼성과 치르게 된다.

삼성은 현재 51승 1무 50패 승률 0.481로 리그 8위에 위치했다. 그러나 평균자책점은 8위(4.71)로 KIA(평균자책점 5.12·8위)를 웃돌고

있다. 팀타율은 3위(0.268)에 위치할 정도로 KIA(0.259·7위)를 압도하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3승 7패로 KIA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순위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리즈인 만큼, KIA가 힘을 내야 한다.

대구에서 만날 삼성은 12일 이성현을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네일을 선발로 투입한다.

삼성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잠실에서 두산에 상대한다.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접어든 KIA가 이번 주 경기에서 상승세를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IA, 코칭스태프 부분 개편

### 정재훈·타케시 코치 퓨처스형

KIA타이거즈가 코칭스태프 보직을 일부 개편해 선수단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

KIA는 11일 “이동걸 코치를 1군 투수 메인 코치로, 이정호 퓨처스 투수 코치를 1군 볼펜 코치로 보직 변경했다. 또한 이해창 퓨처스 배터리 코치가 1군 배터리 코치를 맡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훈 코치와 타케시 코치는 각각 퓨처스 투수 코치와 배터리 코치를 맡으며 유망주 선수 육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 씨름, 국악엑스포씨름대회서 나란히 입상

영암, 남파 단체전 ‘우승’·구례, 여자 단체전 ‘준우승’  
차민수·이동혁·김시우 등 연이어 개인전 2위 선전도

‘전남씨름 일반부 남매’인 영암군민속씨름단과 구례군반달곰씨름단이 전국대회 단체전에 입상하며 전남씨름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영암군민속씨름단(이하 영암군)은 최근 충북 영동체육관에서 열린 ‘위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영동국악엑스포장사씨름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정상에 등극했다.

영암군은 이은수, 최정만, 최성환, 박성용, 남우혁, 조윤호, 차민수 등이 출전한 남자 단체전 8강에서 구미시청을, 4강에서 정읍시청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수원특례시청에 4-3의 신승을 거두며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섰다.

영암군은 개인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다. 차민수(한라장사)·이동혁(소백장사)이 준우승, 최성환(한라장사)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 통산 9번의 장사 타이틀 보유자인 차민수는 한라장사 결정전(105kg 이하)에서 박민교(용인특례시청)에 패해 준우승, 2024 삼척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이동혁도 소백장사 결정전(72kg 이



하)에서 황찬섭(제주특별자치도청)에 주저앉아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최성환은 한라장사에서 ‘팀 동료’인 차민수에 4강전에서 패해 3위에 올랐다.

구례군반달곰씨름단(이하 구례군) 역시 여자부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도했다.

김시후, 장정인, 이세미, 설윤아, 최희화, 선채림, 염하진이 팀을 이룬 구례군은 결승전에서 안산



시청에 1-4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김시우가 매화장사 결승전에서 2위에 올라, 지난해 구례 전국여자전하장사 대회와 삼척장사씨름대회 최정상 우승의 기쁨을 이어갔다. 선채림 역시 매화장에서 3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손재근 전남도씨름협회장은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과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전남씨름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남씨름이 전국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